

C-6. Combination onlay-interpositional graft procedure를 이용한 치조 용선재건술

한용택*^{1,2}, 정철웅^{1,2}, 정현주¹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¹, 광주 메트로치과병원 치주과²

최근 심미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정상 치조능에 비하여 골과 연조직이 수직 및 수평적으로 소실된 Class III 치조용선 결손의 심미적 재건을 위해 많은 술식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수술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단독 술식은 없으며, 예전의 폭경으로 용선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다단계적 수술과정이 종종 필요하게 된다. Class III 치조용선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GBR을 이용하여 치조골을 재생시켜주는 술식과 연조직 이식을 이용한 술식, 그리고 위 두가지 술식을 병합하여 사용하는 술식등이 있다. 연조직을 이용하여 Class III 치조용선 결손을 해결하는 많은 술식으로서 1996년 Seibert에 의해 고안된 onlay-interpositional graft procedure가 Class III 치조용선 결손에 있어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Class III 치조용선 결손의 경우, 필요한 양만큼의 연조직 증대를 얻기 위하여, 많은 양의 연조직이 신장되거나 확대되어야 하며, 충분한 두께와 많은 양의 연조직을 필요로 한다. Combination onlay-interpositional graft procedure는 onlay graft, interpositional graft, 그리고 상피하 결합조직이식 술식의 장점을 모두 이용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증례는 외상으로 인한 하악전치 상실과 국소적인 치조골, 연조직 결손을 Combination onlay-interpositional graft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 증례는 상악전치부 국소적인 골소실로 인한 전치부 치조용선 결손과 견치의 순측 치근노출을 Combination onlay-interpositional graft와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를 이용하여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증례에 사용된 연조직을 사용한 Class III 치조용선 결손의 해결에 있어, Combination onlay-interpositional graft procedure가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이식조직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follow-up이 필요할 것이다.